

▲ **프로야구,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프로야구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트위터 @binyfafa

12개 구단·양대리그 꿈을 쏘다

한국프로야구 30주년 '축제의 밤'…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김영삼 전대통령·정병국 문체부장관·구단대표 등 500여명 참석
30주년 자축 … 1000만 관중 등 새 도약 위한 '비전 2020' 선포

한국프로야구가 지난 30년의 도전과 성장을 자축하고 앞으로 30년, 나아가 100년의 도약과 발전을 다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는 한국프로야구 3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가토 료조 일본프로야구기구(NPB) 커미셔너, 8개 구단 대표·단장·감독과 스포츠동아 송대근 대표 및 프로야구 관계자 500명이 참석해 프로야구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유영구 총재는 기념사에서 "1982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프로야구는 지난 30년간 그라운드에서 땀 흘린 선수와 코칭스태프 그리고 야구인들의 열정으로 사랑받는 국민 스포츠가 됐다"고 자축했다.

이날 이용일 KBO 초대 사무총장과 김응룡 전 삼성 사장, 김인식 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 감독은 프로야구 30주년을 기념해 공로상을 수상했다.

KBO는 이날 30주년을 자축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2020'을 발표했다. 12개 구단으로 양대 리그 도입, 신축구장 건설로 1000만 관중시대 개막, 전 구단 흑자 전환, 하위리그 체제 개편 및 유소년리그 활성화, 야구박물관과 명예의 전당 건립 등 총 5가지 청사진을 바탕으로 2020년 메이저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정상의 리그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야구원로·원년멤버들 "반갑습니다"

프로야구 30주년 이모저모



유영구 KBO 총재(왼쪽)가 이용일 초대 KBO 사무총장에 공로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진환 기자



유영구 KBO 총재(왼쪽)가 대지진으로 고통 받는 일본을 돕기 위해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화용 기자

김용희 등 원년멤버들 대거 참석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프로야구 30주년 기념 축하 리셉션은 프로야구 관계자 및 정·재계 초청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야구원로를 비롯해 원년 선수들, 그리고 현직 프로야구 감독과 심판, 기록원, 프런트, 방송 및 신문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영삼 전대통령 내외도 자리 빛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계 인사와 강승규 대한야구협회장, 전여옥 여자야구연맹회장, 정몽규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전육 한국농구연맹 총재, 이동호 한국배구연맹 총재 등 프로스포츠 단체장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美·日·대만 커미셔너도 축하메시지

김기춘 제8대 총재와 홍재형 제9·10대 총재 등 전 KBO 총재를 비롯해 가토 료조 일본프로야구기구(NPB) 커미셔너, 쟈오쇼우보 대만야구리그(CPBL) 커미셔너도 참석해 한국프로야구 30주년을 축하했다. 메이저리그(MLB) 버드 셀릭 커미셔너는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김응룡 전 삼성 사장이 김영덕 전 감독, 어우홍 전 감독(오른쪽부터)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김응룡 전 삼성 사장 등 공로패

이용일 KBO 초대 사무총장, 김응룡 전 삼성 라이온즈 사장,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 등 3명의 야구원로는 한국프로야구 창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KBO 유영구 총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용일 전 사무총장은 프로야구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프로야구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김응룡 전 삼성 사장은 22년간 프로야구 감독을 지내면서 통산 10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동시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야구 사상 최초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인식 규칙위원장은 프로야구 감독으로 통산 2회 한국시리즈 우승과 함께 2006년 WBC 4강, 2009년 WBC 준우승의 쾌거를 이끌어 한국야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역대 야구 유니폼·모자 전시 눈길

이날 행사가 진행된 신라호텔에는 프로야구 역대 팀들의 유니폼과 모자 등이 전시됐다. 행사 도중에는 프로야구의 역사적 장면들이 화면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 **되돌아본 30년…감회에 젖은 감독들** 삼성 류중일 감독을 제외한 7개 구단 감독이 프로야구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임진환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o02

스포츠동아 3주년·프로야구 30주년 퀴즈잔치

1천만원 어치 야구용품 팡팡! 선수용 배트·글러브 드립니다

스포츠동아가 창간 3주년과 프로야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야구용품 타기 독자사은퀴즈'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20명을 추첨해 각각 5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드립니다. 글러브에는 당첨된 독자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퀴즈문제

1. 프로야구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1981년 프로야구 창립총회가 열린 날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를 기념해 매년 이날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열고 있습니다.
①12월 10일 ②12월 11일 ③12월 12일 ④12월 13일

2. 올 시즌 처음 프로야구 사령탑이 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①김경문(두산) ②양승호(롯데) ③박종훈(LG) ④한대화(한화)

3. 올해 프로야구에서도 팀별로 2명씩, 총 16명의 외국인선수가 활약합니다. 다음 중 투수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짐 매그레인(SK) ②카도쿠라 켄(삼성) ③트레비스 블랙클리(KIA) ④코리 알드리지(넥센)

4. 선발투수가 6이닝 이상을 3자책점 이하로 틀어막은 피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퍼펙트게임 ②노히트노런 ③퀄리티스타트 ④완봉승

5. 다음 중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지 가장 오래된 팀은 어디일까요?
①두산 ②롯데 ③LG ④한화

6. 2010년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는 롯데 이대호였습니다. 다음 중 페넌트레이스 MVP를 수상한 적이 없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박경완(SK) ②배영수(삼성) ③김동주(두산) ④류현진(한화)



●**응모요령**=총 6문항의 정답과 오른쪽 하단의 응모권을 우편엽서에 붙여 스포츠동아로 보내주세요. 정답이 하나라도 틀리거나 응모권이 없으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엽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응모마감**=**4월 13일(수요일)까지** 본사에 도착한 엽서 중 20명 추첨
●**당첨자 발표**=**4월 19일(화요일)자 스포츠동아 지면**
●**상품**=MAX스포츠에서 제조한 프로야구선수용 글러브, 광저우아시안게임 우승기념배트, 프로야구 공인구 등 50만원 상당의 최고급 야구용품
●**보내실 곳**=(우편번호)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스포츠동아 스포츠1부
●**문의전화**=(02)2020-1053~4

MAX 응모권

추신수, 다저스와 시범경기 2안타 2타점



클리블랜드 추신수(29·사진)가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카멜백 랜치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3번 우익수로 선발출장해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올렸다. 시범경기 타율은 다시 3할대(0.304)로 올랐고, 팀도 6-1로 승리했다.

어깨통증 손민한 오늘 MRI 정밀검사



롯데 투수 손민한(사진)이 29일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어깨 정밀검진을 받는다. 26일 대구 삼성전 도중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볼 8개만을 던진 채 조기강판한 손민한은 당초 경미한 부상으로 알려졌지만 28일 부산 신한방사선과에서 초음파검진을 받은 결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좀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촬영 등 정밀검진을 받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선 또 한번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 할 수도 있다.

최희섭 득남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겠다"



KIA 최희섭(사진)이 28일 첫 아들을 얻었다. 부인 김유미 씨가 이날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몸무게 3.49kg의 건강한 남아를 순산했다. 지난해 12월 5일 미스코리아 출신 김 씨와 결혼한 최희섭은 "아빠가 돼 자랑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야구와 생활 등 모든 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